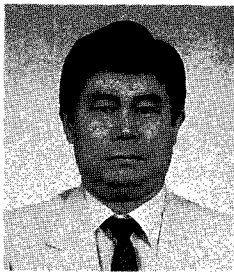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 이 사회의 윗물은 자라는 어린이들이다



최진호  
최진호 연구소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른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의 행실이 옳아야 아이들 또는 손 아랫사람이 그것을 보고 바른 행실을 배운다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이때 ‘윗물’은 어른 또는 손윗사람을 의미하고 ‘아랫물’은 손아랫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자라는 어린이들이야말로 윗물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옛날 내가 어릴 때 비가 오면 마당에서 물장난을 하며 많이 놀았다. 마당의 높은 곳에서 낮

은 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수로를 만들고 그 중간에는 땅을 파서 조그만 웅덩이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웅덩이를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고인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나 윗쪽에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웅덩이의 흙탕물은 점차 맑아지곤 한다. 이것을 보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나는 어려서부터 터득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웅덩이로 보면 어떨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또한 죽어가고 있다. 비올 때 마당에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웅덩이 안에 있던 물은 흘러 나간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유입(출생)되고 살아있던 생명들이 배출(사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당의 웅덩이와 세상의 웅덩이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 마당의 웅덩이는 처음에는 흙탕물이었다고 얼마동안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맑아지는데 세상의 웅덩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마당의 웅덩이에 들어오는 물이 깨끗하듯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아기들도 모두 때묻지 않은 아기들일 텐데 마당의 웅덩이로 들어오는 물은 웅덩이의 흙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의 웅덩이에서는 깨끗한 아기들이 태어나서 세상을 맑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깨끗하던 아기들이 세상의 흙탕물에 오염되고 바로 더러워져 버린다는 사실이 다른 점이다. 이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살아오는 동안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 젖어 온 어른을 감화시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비록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더러워진 어른들을 깨끗하

게 하는 것보다 더러워지기 전의 어린이들을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더 수월할 것이다. 비록 어른들은 혼탁해졌더라도 자라는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때문지 않게 키운다면 점차 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윗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중한 윗물을 어떻게 하면 흙탕물로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키워내느냐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비록 우리 어른들은 때문었더라도 아이들만은 때문지 않게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에게서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로서 비록 자신의 생활이 모범적이지 못하더라도 아이 앞에서만이라도 모범적인 어른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로서 도덕적인 권위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키게 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자녀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더 이상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끝내는 아들에게 백기를 들고 말했다. 아예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것은 옳고 저러저러한 것은 옳지 않다. 나도 옳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 나는 비록 옳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만은 나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이도 잘 이해를 해준다. 그런데 한가지 신기한 것은 역지로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려고 할 때보다 이와 같이

솔직하게 백기를 들었을 때 아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고 더욱 권위가 서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한편 아들도 어릴 때에는 배운대로 옳고 그른 일의 구별이 철저했는데 자라면서 사소한 일에는 면역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교통규칙을 위반하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어쩌다 과속을 하면 반드시 지적하곤 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횡수가 너무 많다 보니 면역이 생겼는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금은 내가 웬만한 신호위반을 해도 아무말도 없다. 좋게 표현하면 그 녀석도 점차 세상사는 요령을 터득해 가고 있다는 얘기고 엄격하게 표현하면 그도 어느 정도 때가 묻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자녀의 교육이 가정에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집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보면 아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유혹하는 퇴폐적이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차 있다. 가까운 예를 하나만 들더라도 학교에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촌지(寸志)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뇌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여러해 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얘기 도중에 촌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마침 옆에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있기에 교육상 좋지 않을 것 같아 아내와 나는 서로 눈짓으로 신호하여 즉시 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아들녀석은 이미 눈치를 채고 씩 웃으면서 “저도 다 알아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대에는 아이에게 어른들의 추한 모습을 감추려고 했지만 아이는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때문지 않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 **양계**